

**B427**

송사리(*Oryzias latipes*)와 대륙송사리(*Oryzias sinensis*)의 산란 및 난 발생과 자어의 성장

박두신\*, 최신석, 송호복  
충남대학교 생물학과

1996년 3월부터 1997년 9월까지 경남과 충남에서 채집한 송사리와 대륙송사리를 항온실내의 수조에서 자연산란시켜 산란과 난발생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부화된 자어는 사육하면서 자치어의 성장에 대해 조사하였다. 산란은 두 종 모두 교미 전단계, 교미 단계, 교미 후단계의 3단계로 구분되었다. 난발생은  $26 \pm 0.5^\circ\text{C}$ 에서 수행한 결과 두 종 모두 침성부착란으로 유구와 부착사가 있으며, 송사리 난은 직경이 평균 1.28 mm이고 난할은 35분 간격으로 진행되며, 수정후 9일 만에 부화하였다. 부화직후 자어의 전장은 3.9~4.2 mm로 난황을 갖고 있고, 부화후 28일째 자어는 전장이 14.3~21.2 mm 범위로 각 지느러미 기조가 완전하게 형성되어 치어기로 이행하며 42일째 치어는 전장이 24.1~25.0 mm 범위로 완전한 성체의 체형이 나타났다. 대륙송사리 난은 직경 평균 1.15mm이고 난할은 25분 간격, 수정후 7일 만에 부화하였다. 부화직후 자어의 전장은 3.6~3.9 mm로 난황을 갖고 있고, 부화후 21일째 자어는 전장이 13.0~15.8 mm 범위로 각 지느러미 기조가 완전하게 형성되어 치어기로 이행하며 35일째 치어는 전장이 21.5~22.9 mm 범위로 완전한 성체의 체형이 나타났다.

**B428**

Chlorinated Hydrocarbon's distribution in sediments and oysters in Korea.

Sang Hee Hong<sup>1\*</sup>, Sung Kuy Kim<sup>2</sup>, Wun Hyuk Yim,<sup>2</sup>  
Jae Ryoung Oh<sup>2</sup>

<sup>1</sup>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up>2</sup>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and chlorinate pesticides are known as very toxic and persistent pollutants. PCBs have been widely used for industrial purposes. Howeve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f these compounds in Korea is not well documented yet. In this study, PCBs and chlorinated pesticides in sediments and Pacific oyster(*Crassostera gigas*) from seven costal areas (Kunsan, Mokpo, Busan, Sukcho, Ulgin, Ulsan, Pohang) were quantitatively determined to assess the extent of contamination and bioaccumulation of these compounds.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sediment and biota was found in Ulsan. In comparison with other contries, however, the overall concentrations of these compounds were relative low.